

Dokdo

Introduction of Dokdo's Ecosystem



China

Korea

Japan

East Sea

Seoul

Jukbyeon

Pohang

Ulleungdo

130.3 km

87.4 km

Dokdo

216.8 km

Yellow Sea

발행 취지

독도는 동해의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대한민국 동쪽 시작의 섬이다.

독도는 육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와 도래지로서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경이로운 기암절경은 태고의 신비를 뽐내고 있다.

동해의 보고(寶庫), 독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1982년), 북정도서 제1호(2000년)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책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독도의 절경과 자연생태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독도

위치 : 동도 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

서도 북위 37° 14' 30.6" 동경 131° 51' 54.6"

면적 : 187,554m²

동도 73,297m², 서도 88,740m², 부속도서 25,517m²

높이 : 동도 98.6m, 서도 168.5m

동서도간 거리 : 151m

부속도서의 개수 : 89개

위치 : 대한민국 울릉도에서 동남쪽 87.4km

일본 오키섬에서 157.5km

Contents >>>

[	06/11	12/17	18/23	24/29	30/31	]
	독도의 자연 경관	독도의 식물	독도의 조류	독도의 수중생물	독도의 시설물	







독립문바위

독도의 자연경관

독도는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조면 안산암 용암 화산암으로 수직에 가까운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괴석에 의한 해식동굴 및 해식아치의 발달이 타월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독도를 「충남도서 1호(환경부)로 지정하여 그 복원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생태계 모니터링과 5년 단위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악어바위

계상 동해각력암의 풍화로 인해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양을 지닌 바위



얼굴바위

나중질 화산력이 함유된 용화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으로 사람의 얼굴의 양모습을 닮았다.



한반도바위

동도 북동쪽 구 산자점 부근바위에서 옮겨온 모습이나, 산바위의 형체가 한반도의 모습과 닮았다.



등도 전경



서도 전경



삼형제 굴바위

파도의 침식으로 형성된 해식아치가 관촬된다. 왼쪽에 위치한 솟대바위는



솟대바위

동쪽의 침식에 강한 주면암이 오랜 세월 파도의 침식을 견뎌내어 형성된 사스택



독도의 식물

독도는 경사가 급하고 토양이 잘 발달되지 않았으며, 수분이 부족하여 육상에 비해 자생하는 식물의 종류가 적다.
과거의 연구결과를 비교, 종합하면 독도에 생육하고 있는 관속식물은 60여 종류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가 2005년부터 2006년간 실시한 생태계 정밀조사에서는 총 49종류의 관속식물의 생육이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분류군이 포함된 과는 벼과로서 여기에는 개밀, 큰이삭풀 등 8개 분류군이 포함되어 있다.



망채송화가 핀 풍경



초종용

바닷가에서 육 종류와 뿌리에 기생하는 나뭇잎이 식용으로 동두의 능선부에도 많이
 개생육한다. 꽃은 5-6월에 연한 자주빛으로 핀다.



박주가리

덩굴성 야생해초로 줄기와 잎은 짙은 회색이 나뉜다.
 7-8월에 연두망의 안현사주색 꽃이 피며, 꽃잎이 뒤로만리고 부송부송한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온다.



번행초

바닷가에 무리지어 자라는 야생해초로 동두와 서두에서 흔하게 관찰된다.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핀다.



사철나무 (Spindle Tree)

가우산이나 무로 바닷가의 빈 그늘진 곳에서 자란다. 꽃은 6-7월에 연한 노란 빛을 띤 녹색으로 핀다.



독도해국

울릉도와 독도에서 자라는 아열성 식물로 한반도 남해안에서 자라는 해국에 비해 꽃과 잎이 더 작다. 동도와 서도의 해안에 무리지어 자라며, 독도의 기암을 나타내는 꽃이다.



갯괴불주머니

한반도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지의 바닷가 무리집에서 자란다. 줄기등 자르면 불쾌한 냄새가 나며, 4-5월에 긴 꽃줄기 서투무양의 노란 꽃이 핀다.



갯까치수염



독도의 새

독도 외로이 서있는 독도는 자유로운 날개짓으로 새하얀 구름을 가릴 때 멋지게 비행하는 아름다운 새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그간 독도에서 관찰된 것으로 알려진 종은 81종이었으나, 대한민국 환경부의 생태계 정밀조사에서 26종이 추가 확인되어, 독도의 조류는 총 107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인 독도새매(*Falco peregrinus*) 1종이, 11급인 발매(*Bernis apivorus*), 순개(*Mihus migrans*), 뿔쇠오리(*Synthliboramphus wumizusume*), 올빼미(*Strix aluco*) 등 4종이 관찰되었다.

특히, 그 울음소리가 환경부 공표된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괭이갈매기는 남도와 서도에서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다.



괭이갈매기의 사랑



괭이갈매기의 알

괭이갈매기는 한둥지에 1~3개의 알을 낳으며 보통 2개의 알을 가진 둥지가 가장 많다.



어미갈매기와 새끼

새끼가 배 고프다는 신호로 어미의 부니깅에 있는 붉은 점을 쾅면, 어미는 아들에게 빈껍질과 빈알을 먹이로 새끼에게 투해준다.



검은머리방울새

어른컷에는 사베리아에서 반식하고, 대한민국에는 기온천에 찾아와 활동하고 봄에 다시 반식지로 돌아가는 겨울철새이다.



후투티

남천에 우리나라에 찾아와 반식하고 기온천에 다시 활동지만 태국, 베트남 등 주로 돌아가는 여름철새이다.



노랑턱멧새

겨울 동안 볼 수 있는 텃새로 숲/잡산의, 들에서 관찰된다.



괭이갈매기의 구애



독도의 수중생물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어류는 총 104종으로 오징어, 흑돔, 병에돔, 볼락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무척추동물은 총 368종이며, 해조류는 160종이 확인되었다.

과거 독도에서 많이 서식하였던 베타시자(강지, *Zakophus californianus japonica*)는 언제시대 때 대량 포획되어 멸종되어있으며, 현재 대한민국과 환경부 주관으로 베타시자 복원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어렘늘래기

해조류 기반들한 암초지대에 서식한다. 암수에 따라 온 색깔과 형태가 다른 것이 특징이다.



무쓰뿌리돌산호

제주도금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동산호류로서 보통 여러개의 개체가 모여군집을 이룬다. 독두에는 수심 5~20m 사이에서 매우우수한 군락을 형성 하고있다.



얼룩참집게

절지동물, 갑각류에속한다. 온몸 선명한 붉은 색이며, 눈사루, 갈브나리에 분홍색의 얼룩무늬 띄고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라

방추형 패각을 가지며, 체중에 2종의 관상근기가 있다. 조간대에서 수심 20m 부근의 바위에 붙어 해조류 등 섭식한다.



홍합

껍질은 진한 적갈색이며 각절이 아래로 심하게 굽어있고 뒷면은 원형으로 둥글다. 패각 내면은 진주빛으로 광택이 난다.



파랑갯민 숭달팽이

온은 형색이고 외투막 가장자리는 진한 노란색이나 등 쪽에도 노란 줄기가 있으나 인정하지 않는다.



두줄베도라치

몸은 길고 가늘며,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과 황색의 줄무늬가 있다.
해조류가 잘 보일만한 암초지대에서 살았는데, 암 속에 숨어들어 숨어 있다.



바다딸기류

독두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신호 유로써 체형은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어
있으며, 종류는 연한 미색이다.



부채꼴산호

독두에서 흔히 발견되는 신호유로써 나무나 부채모양으로 자란다.
여러 가지, 개체가 모여 하나의 군체를 이루며, 수중의 비위에 구조를 형성한다.



독도의 시설물

북도에는 주막과 독도경비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물만 갖추고 있다.

남도에는 접안시설과 준공기타비, 경비초소, 바사, 우체통이 있으며, 서도에는 활강과 어업인 숙소가 있다.



독도접안시설



어민대피소



물골



길잡이 등대



대한민국 표석



독도우체통



MINISTRY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TEL. 02-2110-6736 / FAX. 02-504-9207

<http://www.me.go.kr>